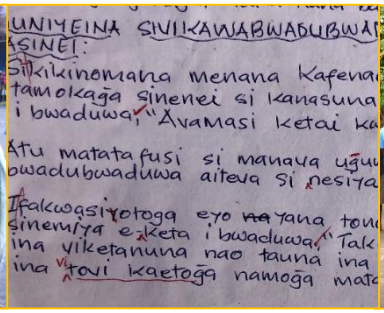
마을은 그대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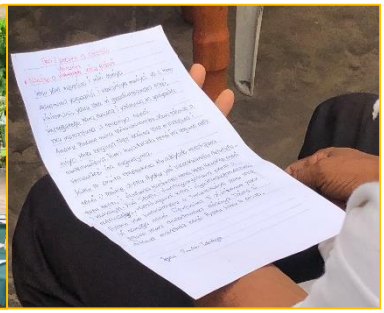
오랜만의 방문이었지만 마을 집도, 노래와 춤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는 마을 사람들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바이러스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기간에는 마을도 긴장하며 조심스레 규칙들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상사태가 해제된 후로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에 오기 전 뉴스를 통해 이제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도 그러겠구나 했는데 마을은 코로나 이전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는 마을이라 그럴까요? 뉴스를 보면 마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이전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밭에 가고, 물고기를 잡고, 밤늦게까지 얘기하는 것 좋아하고, 모여 노래 부르는 것을 즐기는 카니누와 사람들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행사라니… 마을이라 가능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광장에 모여 특별한 행사를 했습니다. 다름 아닌 카니누와 성경 읽기, 받아쓰기, 암송, 글짓기 대회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18일에 있었던 카니누와 미니 성경 봉헌식을 기념하는 의미로 열린 행사입니다. 11월 22일 주일 예배 후 오후 4시부터 시작되어 깜깜해진 밤 8시까지 진행되었는데, 간간이 비도 내렸지만 참가한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참가자는 성경 읽기에 참여한 아이 엄마였습니다. 20명이 넘는 참가자들 속에서 어쩌다 보니 순서가 뒤쪽으로 밀렸습니다. 기다리는 내내 카니누와 미니 성경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다른 참가자들이 읽는 부분을 따라 읽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떨어져 주위가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데도 눈은 책에 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갓난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도 한 손에 든 책을 놓지 않고 눈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마침내 본인 순서가 되었습니다. 내심 기대가 컸습니다. 얼마나 잘 읽으려나… 역시 노력은 그녀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를 줄줄 읽어 나갔습니다. 잠시 더듬거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이내 자신이 읽어야 하는 부분을 끝까지 잘 읽었습니다. 속으로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잘한다. 참 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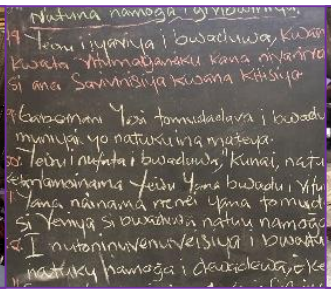
Wycliffe Bible Translators of Canada
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 선교회
4316 – 10 St. NE Calgary, AB T2E 6K3
전화: 1-403-250-5411 / 1-800-463-1143

PNG 연락처
휴대전화: (국가번호 675) 7109-5044
이메일: joseph-joyce_park@wycliffe.ca
카톡 id: kaninuwa2011

PNG 우편 주소: Joseph & Joyce Park
c/o SIL Alotau Centre
PO Box 30, Alotau, MBP (우편번호) 211
PAPUA NEW GUINEA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요즘 저희는 2021년 새해 계획과 아울러 향후 5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즈음 저희가 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작년 12월,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둔 것은 '카니누와 구약 파노라마' 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올해 11월 이 책 출간을 기준으로 한 달 전, 두 달 전… 무엇이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맞춰 정했습니다. 4년 전 출간된 첫 번째 책인 '카니누와 미니 성경'에 이어 '카니누와 구약 파노라마'를 두 번째 책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 초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났고, 언제 '카니누와 구약 파노라마' 책을 출간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새해에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번역과 점검 및 수정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변수가 생겨서 올해처럼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카니누와 번역팀은 속테스, 잭, 레비를 각 팀의 리더로 세우고 3팀으로 나누어 현재 요한복음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번역자들이 번역에 앞서 요한복음 말씀을 깊게 공부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 번역위원회의 도미닉과 케일로에게 지혜를 주셔서 번역팀을 잘 돕도록, 그리고 번역 사무실을 짓기로 했는데 그 준비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 저희가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내년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다시 한번 기대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오늘 날씨는 어떨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시베시베 마을에서의 하루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롯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이웃의 도움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무거움이 아닌 당연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나와 인터넷이 되는 세상에 오니 그 '의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실감합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취감은 더 혼자 일하는 바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더 의존하며 이웃을 돌아보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때임을.

2020년 12월 18일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 드림

파푸아뉴기니에서 성탄과 새해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3:16 일부, 메시지 성경)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올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며 새해를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며 카니누와 종족 성경번역팀과 함께 성탄과 새해 인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와 함께 카니누와 종족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기꾸!